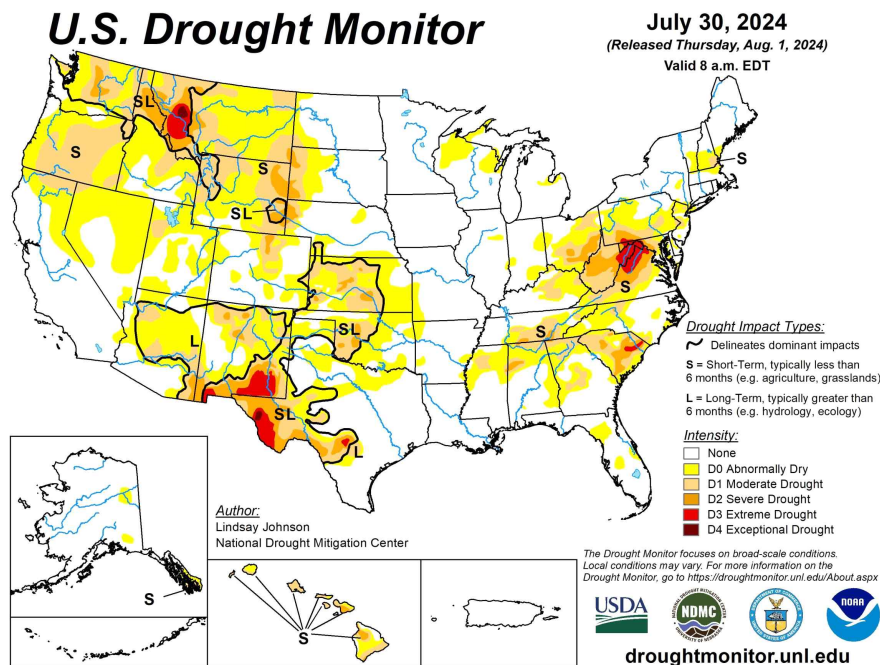




8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32)

□ 미국 기후 현황(7/28-8/3)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더위가 전국 대부분을 사로잡음으로써 토양 수분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들에 있는 방목지, 목초지 그리고 여름작물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가장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작물 스트레스 중 일부가 평원에 영향을 미쳤는데, 고립된 뇌우가 내렸으나 몬태나와 다코타 서부처럼 먼 북쪽까지 확대된 세 자리 수 (100도)의 기온을 국지적으로 완화했을 뿐이다. 그러나 더 동쪽에 있는 중서부는, 95° F를 넘은 기온이 먼 서부의 옥수수 와 대두 생산 지역들에 국한되어서, 대체로 더위 스트레스 없는 여름을 계속 경험했다. 또한 중서부에 산발적이거나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가 내려서 옥수수와 대두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대체로 적당하게 유지해주었다. 한편 남부는 미시시피 강 동쪽에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 내림에 따라 더운 날씨를 잠시 피했다. 그밖에 서부에서는 극심한 더위가 사라졌다가 얼마 후 주 후반에는 다시 기록적인 고온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잠깐의 그 시원한 기간 덕분에 소방관들은, 캘리포니아 치코 근처에서 600개가 넘는 건축물을 파괴시킨 40만2천 에이커 규모의 파크 산불 (Park Fire) 등, 서부에서 가장 큰 산불 중 일부에 대한 진화 작업에 나설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대분지 그리고 산간 서부에서는, 미국 걸프 연안 서부 지역과 남동부와 함께, 주간 기온 값이 평년 수준에 가까웠으나, 전국 대부분은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싸여있었다. 대조적으로 전국 중부 지방 대부분을 가로질러, 북동부 대부분과 북서부에 산재되어 있는 곳들은 물론이고 평원과 북부 옥수수 지대의 넓은 구역들을 포함하여,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5° 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7/29-8/4)

전국 동부 대부분에는 평년을 초과하는 강우가 내렸고 중서부, 북동부 그리고 남부의 일부에는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주간 강수량을 기록했다. 아이오와 남부 일부는 최소 5인치의 비를 기록했다. 대평원과 남서부에 있는 일부 지점들을 포함해서 태평양 북서부와 로키산맥의 일부가 평년 대비 최소 두 배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서부의 대부분은 여전히 건조했다. 한편 전국 대부분은 평년보다 따뜻했으며 오대호, 뉴잉글랜드, 뉴욕 그리고 와이오밍의 일부는 평년보다 8° F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7/28-8/3)

■ 유럽:

대륙의 남부와 서부에서는 더운 날씨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부와 북부 재배 지역들에는 소나기가 계속 내렸다. 질실히 필요했던 최근의 시원한 기간이 지난 후에 헝가리 남부와 발칸반도에는 다시 극심한 더위 (35-39° C)가 찾아와 작물 스트레스가 다시 발생했고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더욱 낮추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초반이어서 여름작물의 관개 수요를 아주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고 재촉을 받은 면화는 정상보다 2주를 초과하여 발달 단계를 앞서 나감으로써 열린 꼬투리 단계를 지나고 있었다. 더 서쪽에 있는 프랑스에는 극심한 더위 (35-39° C)가 다시 찾아왔고 스페인에서는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었다 (북쪽은 35-39° C, 남쪽은 38-42° C); 최근의 건조함과 더불어 그런 더운 날씨는 여름작물의 관개 수요를 아주 높게 유지했고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에 있는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에 대한 수확량 전망을 낮추었다. 한편, 중유럽과 북유럽 대부분에 내린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가 생식기 내지 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여름작물들에게 유리했고 프랑스 동부, 폴란드 서부 그리고 리투아니아에 내린 주간 총강수량은 국지적으로 75 mm를 넘었다.

■ 구소련(서부):

이 지역에는 더 시원한 날씨가 자리 잡았고 북쪽과 서쪽에는 비가 내렸으며 대조적으로 남쪽은 건조하고 가뭄이 들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평균 기온은 평년의 1-2° C 이내였고 몰도바와 러시아의 중부 지방에 있는 로스토프 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낮 최고 기온이 대체로 35° C 미만이었다. 알맞게 더 시원한 기온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중부에서부터 러시아 남서부까지 가뭄이 지속되었다. 남부의 여름작물들은 대체로 종실비대 중이거나 성숙 중이었고 이번 계절의 건조함과 극심한 더위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대체로 돌이킬 수 없다. 벨로루시에서부터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의 중부 지방까지 광범위한 소나기 (10-60 mm)가 내려서 생식 중이거나 종실비대 중인 옥수수, 대두 및 해바라기에 대한 전망을 양호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더 북쪽에 있는 재배 지역의 작물들은 이 지역의 남부를 괴롭혔던 강렬한 더위를 피해왔다.



■ 동아시아:

보고 기간 중 중국 동부 전역은 날씨가 소나기로 시작해서 소나기로 끝났고 주중에는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내린 폭우가 주초까지 계속되었고 중국 남서부에서부터 황하 유역의 서쪽 구역을 지나 북동쪽까지 이어졌다. 총 강우량은, 주말에 내린 계절성 강우와 함께, 지난 30일 동안 화북 평원 (400 mm, 평년의 188 퍼센트)과 북동쪽 일부 (랴오닝: 450 mm 초과, 평년의 268 퍼센트)에 이미 내린 인상적인 양에 더하여 증가되었다. 주중에 날씨가 건조해져서 과도한 습기가 완화되었으나 면화와 기타 여름작물들에게 이미 국지적인 손상이 발생했다. 한편 남서부 전역에서는 6월에 과도한 습기가 있었던 반면 7월에는 거의 완전히 건조해졌다. 저장성을 중심으로 한 한 지역에는 6월 달에 비가 평년 강우량의 162 퍼센트나 내렸으나 7월에는 강우량이 평년 수준의 34 퍼센트로 떨어졌다. 최근의 건조함 외에도 기온이 급등하여 최근에 40° C를 넘어서 벼와 기타 계절 작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었다. 중국내 다른 부분을 보면 서쪽 (신장)은 잠깐 동안 더웠으나 더 계절에 맞는 기온을 유지하여 면화에 아주 좋은 작물 조건을 유지했다.

■ 호주:

서호주에서는 광범위한 소나기와 계절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어 영양기 밀, 보리, 캐놀라에게 이롭게 작용했고 작물의 계절 초 전망을 더욱 개선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우량은 10-25 mm 사이였고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초반이었다. 대조적으로 호주 남동부에서는 소나기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내리더라도 소나기가 내리는 시간 간격이 멀어서 영양기 겨울 곡물들과 유지작물들을 위한 추가 수분은 거의 공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평년보다 시원한 날씨가 순증발손실을 제한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섭씨 10도 중후반이었다. 더 북쪽에서는 소나기성 날씨 (5-20 mm)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와 퀸즈랜드 남부에 있는 밀과 기타 겨울작물들에 대해서 거의 이상적인 재배 조건을 유지했다. 북동쪽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섭씨 10도 후반과 20도 초반이었다.

■ 아르헨티나:

중앙 아르헨티나의 주요 생산 지역들에서는 소나기가 겨울 곡물들에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수분을 올려주었다. 코르도바 동부에서부터 남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까지 내린 총 강우량은 10-25 mm 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와 라팜파에서는 건조한 조건이 계속되었다. 코르도바 서부와 대부분의 북부 농경 지역들도 보다 건조한 날씨를 보였으며 5 mm를 초과하여 기록한 곳은 거의 없었다. 지역 전체에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높아서 충분한 수분을 가진 북부 지역에서는 겨울 곡물들의 성장을 촉진했다. 전반적으로 따뜻했지만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그 주변에서는 결빙 (야간 저온이 -10 ~ -2° C)이 겨울곡물의 성장을 제한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8월 1일 현재 밀과 보리가 최소 99 퍼센트 파종되었고 한편 옥수수과 면화 둘다 96 퍼센트 수확되었다.

■ 브라질:

따뜻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남부의 주요 생산 지역들의 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유리한 전망을 유지했다. 마투그로수두술까지 먼 북쪽에 내린 가벼운 비 (국지적으로 10 mm 초과)는 표토 수분을 유지해주어 나중에 심은 작물이 발아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한편 야외 작업은 거의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계절에 맞지 않은 따뜻함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3° C 높았고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후반과 30도 초반에 이르렀음)이 가벼운 소나기를 동반하여 돌아난 밀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2기작 옥수수 7월 29일 현재 85 퍼센트 수확되었고 한편 60 퍼센트를 넘는 밀이 개화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8월 1일 현재 밀 파종이 거의 완료되었고 1 퍼센트가 개화 중이었다. 더 북쪽에서는 계절적인 따뜻함과 건조함이 중앙 및 북동부 생산 지역들에 있는 2차 여름작물들의 수확을 지원했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8월 2일 현재 면화의 수확은 평균 47 퍼센트 보다 낮은 수준으로 35 퍼센트 수확되었다.